

데스크사각



송기동
예향부장·편집국 부국장

1992년 10월 열린 미국 대통령 출마 후보들의 2차 TV토론회. 한 여성이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국가 부채가 개인적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만약 없다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치료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할까요?"

재선을 노리던 대통령 조지 H.W 부시는 "질문의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되물었다. 이때 40대 젊은 후보이던 빌 클린턴은 이렇게 답했다.

"내가 아칸소 주지사할 때, 일 자리를 잃고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 고통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I feel your pain.)"

대선 결과 뒤바뀐 '공감' 능력

클린턴은 자서전 '마이 라이프' (몰পুর)에서 이때 TV토론에 대해 "진짜 유권자들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면서 "나는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그들의 여과되지 않은 판단을 신뢰했다"고 회고했다.

구수환 (사)이태석재단 이사장은 최근 광주시 동구 산수도서관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미 대선 후보들의 일화를 들며 "I feel your pain"은 우리말로 하면 공감(共感) 능력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 의견, 주장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공감

'당신의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라는 말 한마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 콘서트에 앞서 다크 '부활'이 상영됐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한 PD이자 분당 지역 중군기자들 지냈던 구 이사장이 이태석(1962~2010) 신부의 선종(善終) 10주기에 맞춰 제작한 다크멘터리이다. 이 신부가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 뿌린 사랑의 씨앗들이 10년 후 어떻게 났는지를 살핀다. 놀랍게도 나이 어렸던 제자들은 의사와 약사, 기자, 공무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의대에 진학한 이 신부의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주기적으로 한센인 마을을 찾아 의료 봉사를 펼치고 있었다.

다큐에서 생전의 이 신부가 한센인들을 스스럼없이 대하고 신발을 만들어 주던 모습이 눈길을 끈다. 병으로 인해 문드러진 그들의 발은 일반 신발을 신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종이에 한센인 한 명 한 명 일일이 발바닥 본을 뜬 후 개인 맞춤형 신발을 선물했던 것이다. 제자들 역시 의료 봉사를 하며 스승처럼 한센인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다. 한센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제자들의 자세는 스승인 이태석 신부 그 자체였다. 이 신부의 삶은 '섬김(Servent) 리더십'의 전형으로 꼽힌다. 공감과 경청, 소통, 봉사를 말이 아니라 몸소 실천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청년 세대 158명(외국인 26명 포함)이 암시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참사 이후 사라지고 남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와 정부의 태도는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암시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로 표기하도록 했다. 분향소에 영정 사진마저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분노하는 유가족과 애도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조치였다.

유가족들은 참사 42일 만인 지난 10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꾸렸다. 이태원 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다. 유가족 동의를 받은 희생자 77명의 영정과 위패를 안치했다. 49재를 지낸 후 사흘이 지난 19일, 개인적으로 분향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가지고 와 달라"는 유족의 항의를 받고 방문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다.

대형 참사 피해자 아픔 함께 나눠야

해법은 없는 걸까. PD 시절 복유럽 정치를 깊이 있게 살펴본 구 이사장은 저서 '우리는 이태석입니다' (북루멘스)에서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받는 타계 엘란데르(1901~1985) 전(前) 총리의 자서전에 실려 있는 문구를 소개한다.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찾아내야 한다. 무엇을 걱정하는지 귀담아 듣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 이사장은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 국민이 필요한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 이것이 23년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구청장 등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는 당신의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라는 말을 듣기 이리도 어려울까? 참담함과 비통함으로 가득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함께 울어줄 진심어린 구런 말...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감의 리더, 상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경청의 리더,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소통의 리더, '섬김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법대로'가 아닌 '진정성'으로 다가서야 한다.

김용택 시인의 시 '울고 들어온 너에게'를 읽는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영명이 밀모로 두 손 넣고 영명이를 들었다. 냐다 되자거러다 보면 손도 마음도 따뜻해진다. 그러면 나는 광광 언 들을 헤매다 들어온 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song@kwangju.co.kr

社說

내신 불신 부르는 '베끼기 출제' 근절 대책을

광주 지역 고교에서 교사가 또다시 외부 기관 시험문제를 베껴 출제한 것으로 드러나 교사 관리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A고교에서 치른 2학년 물리 중간·기말고사 문제 대부분이 'EBS 수능 특강 물리학' 교재에 실린 문제와 똑같이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 측은 2학년 학생 89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기말고사 재시험을 치렀고 중간고사는 오늘 다시 치를 예정이다.

애초 학교 측은 문제 베끼기를 모르고 있었는데 학부모들이 학교와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2학년 2학기 물리 중간고사 20문항 중 객관식 열 문항과 서술형 다섯 문항을 '2023학년도 고3 EBS 수능 특강 물리학1' 교재에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기말고사 25문항 중 14문항도 같은 교재에서, 나머지 11문항은 '2022학년도 고3 EBS 수능 특강 물리학1'에서 가져와 고

대로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문제 베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에는 B고교에서 독서 교과 시험 출제를 맡은 교사가 사설 문제 은행 사이트에서 26문항 중 13문항을 베껴 출제해 전국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학생 지도는 물론 각종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데 고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교사의 일탈을 넘어 광주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고교 내신에 대한 불신을 불러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진행해 온 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와 교사 관리 시스템을 원천 재검토해야 한다.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 은행 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테스트베드 선점...반도체 단지 유치 기대 크다

광주시에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관련해 국내 최초의 실증 작업에 성공한 데 이어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테스트베드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기로 하고, 1단계로 광주에 NPU팜(신경망처리장치 집적단지)을 조성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2년간 200억원 규모의 예산도 배정했다. NPU는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다.

광주 NPU팜은 내년 1월 사업 공고와 3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첨단 3지구 AI 집적단지에 들어선다. 사업의 핵심은 공공 영역에서 국산 AI 반도체의 호환성·안정성·사용성·확장성·성능 등을 원스톱으로 실증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NPU기술이 안정화되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기술 우위를 확보한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기술과 접합해 고성능·저전력의 '지능형 반도체'로 불리는 PIM(Processing in Memory) 기술을 개발, AI 반도체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광주를 국산 AI 반도체 테스트베드 사업지로 최종 확정된 것은 그동안 다져온 실증 경험과 내년 초 완공을 앞둔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가 풍부하기 때문일 것이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인 'AI 반도체 특화단지'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접경 지역에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AI 반도체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부지와 용수·물류망은 물론 AI·전력·자동차 등 풍부한 전방산업까지 갖추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AI 반도체 실증 사업에 이어 테스트베드까지 구축된다면 최정치가 될 수 있다. AI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기대감이 커지는 까닭이다.

無等鼓

지구촌 대추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막을 내렸다.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오랜만에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치며 행복했다. 이태원 참사라는 큰 아픔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면서 국민 모두가 이를 위안으로 삼았다.

특히 3년만의 코로나 방역 해제로 한국팀의 12번째 선수인 '붉은 악마들'이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일사분란하게 펼치는 응원전을 다시 볼 수 있어 좋았다. 붉은 악마들의 뜨거운 응원전은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막지를 못했고, 그들의 지지하지 않는 열정에 오히려 영하의 날씨가 녹아드는 듯했다.

한국 선수들의 노력과 헌신도 돋보였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16강 탈락의 위기에서도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앞만 보고 달려 가겠다"고 밝혔고, 결국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에서 강호 포르투갈을 2대1로 꺾는 기적의 드라마를 썼다. 조별리그 2차전까지 한국의 16강 진출 확률은 9%였다. 하지만 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뜻 100%로 바꿔 놓은 것은 국민들의 열정적 응원과 이에 보답하려는 선수들의 노력과 정신력이었다.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결코 일어나서도, 있어서도 안 되었을 '이태원 참사'와 죽기 살기로 진땀 뺀 싸움만 벌이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보고 있다면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라는 생각에 우울하고 답답하지만 했을텐데 말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내년 예산안을 놓고 끝까지 가 보자는 식으로 쟁쟁한 일삼는 여

야 정치인들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누구 하나 '내 탓'이라며 책임질 줄 모르는 정부 관계자들도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했는지 궁금하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외칠 자격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과연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지를 먼저 자문해 봤으면 한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은편칼럼

대중의 의식 속에 살아 숨 쉬는 사자성어



심명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순회사서

쉽 없이 달려온 연말이 되면 여러 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올해의 사자성어(四字成語)'를 발표한다. 1년 동안의 현실 상황이나 정치적 공과를 종합하여 반영하는 데다 어떻게 한 해가 흘러갔는지 흐름을 대변에 알 수 있어 선정된 사자성어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가끔은 일반 대중의 입장과 시각에서 볼 때 편파적이고 냉소적이어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정 과정에 합리성과 보편적인 기준이 갖춰져 된다. 덕분에 우리는 되새길수록 맛깔스러워 내 글자를 반추해 보고 생활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혹자들은 묻는다. 사자성어는 옛 시대의 전유물이며 한자를 사용하는 세대가 갈수록 줄어들고 결국에는 사장될 수도 있는데 굳이 사자성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냐고 말이다. 하지만 사자성어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자성어 한 글자 하나라도 어떤 특정 분야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풍부한 문헌들을 통

해서 대부분은 그 근원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본적인 한자 해독 능력만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 있어 그 효용성도 정말 대단하다.

올해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된 양두구육(羊頭魚肉)을 살펴보면,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겉과 속이 서로 다르다는 뜻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근원은 '안자춘추'에 기록되어 있다. 제나라 영공은 마음에 든 궁중 여인들에게 남장을 시켜놓고 즐기는 괴이한 버릇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남장 여인 풍습은 궁중을 벗어나 민간에도 널리 퍼져 나가기로 극도의 환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영공은 궁 밖에서 여자들이 남장하는 것을 왕명으로 금지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다 여론회의에서 궁중에서는 남장한 여인을 허용하면서 민간에서는 금하는 것은 "식욕점에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다는 신하들의 고언을 듣고서야 궁중은 물론 민간에까지 여자가 남장하는 것을 금하는 나라에 남장 여인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처럼 사자성어는 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거나 누구나 지닐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에 호소하여 대중의 공감 속에 회자되어 오는 것으로서 생명력을 지니는 말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일이나 어떤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까지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이며 다양하게 활용되어 우리 생

활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교수신문이 발표한 2022년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過而不改)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민생은 없고 당리당락에 빠져서 나라의 미래 발전도 걱정만 앞세우는" 현재의 여야 정치권의 행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행정 관계없이 리더의 본질은 잘못을 고치고 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숙선 수범하는 자세와 마음을 비우는 자세에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같이 사자성어를 이용하여 사회 현상의 부조리나 비리 또는 불협화음 양상을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 현상은 네 글자만으로도 하나의 충격적 사건에 대응하여 형성된 대중의 집중한 비판 의식과 공감대를 표출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사자성어가 대중에게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작금의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 없이도 간결한 문구로 특유의 맛과 효과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지금도 우리의 정신세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길고 긴 역사를 통해 특정한 지혜의 결정체이며 불확실한 미래를 점치게 하는 하나의 예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자성어를 옛 시대의 유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끔씩 선조들의 슬기와 위트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기고

기적의 또 다른 이름은 나눔



서동국
전남도의회 의장

겨울의 황량함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다가를 붙을 향한 따뜻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막막한 황무지에도 씨앗은 움트고 꽃은 피어난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말이다.

전남도 곳곳엔 차가운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한 떨기의 꽃과 같은 이들이 있다. 어려운 이웃들 밥 한 끼 든든하게 챙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김장김치와 밀반찬을 나누는가 하면, 직접 농사를 지어 추수한 쌀을 십수 년째 지역 저소득 가정을 위해 기탁하기도 한다.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전남도 내 나눔 소식은, 촘촘한 휴먼 네트워크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최전방의 울타리가 되어 사회의 영속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사실, 올해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불가와 유류비가 폭등했고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는 재유행의 정점을 찍으며 여

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또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까지 3고(高) 시대가 지속되며 민생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야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더 절실한 시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작은 온정의 손길, 가장 낮은 곳에서는 힘을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복지 위기 가구 제로화를 위해 지난 두 달여간 민간 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 투병 생활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의회 또한 전남도의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협력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해 면밀히 살필 생각이다.

특히 제12대 도의회는 지난 7월 민생 문제를 총괄할 '민생경제 살리기 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민생 현안에 대한 실제적이고 탄력적 대응이 복지의 일환이라는 생각에, 실태조사를 비롯해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자 의회 차원에서 지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나가고 있다.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민생 문제를 꼼꼼히 챙기는 한편, 도민이 체감하는 현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전

남도의 주력 산업인 농어업과 도내 여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 특별 고용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때맞춰 나눔의 온도를 높이는 의미 있는 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웃에게 기부한 만큼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이 최근 전남도청 한가운데 세워졌다. 내년 1월 31일까지 설치 운영되는 이 '사랑의 온도탑'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더욱 절실해진 나눔 실천을 독려하고자 세워졌다. 목표 금액을 1% 달성할 때마다 1도씩 올라가고, 목표 금액을 다 채우면 100도가 된다.

올해 전남도의 목표액은 99억 2000만 원으로 모금액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된다. 지난해 전남은 100도를 초과해 100.9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같이의 가치'를 아는 도민들의 열정적 참여 속에 120도, 150도까지 사랑의 온도탑이 끊어오르기를 기대한다.

소외되고 낮은 곳에서 발견해 낸 희망이야말로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누군가를 위해 삶을 이길 힘을 생생히 내며 일상 속 기적을 실천하는 전남도 곳곳 나눔의 천사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더불어 기부와 나눔으로 완성된 이 따뜻한 연대가 도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길 바란다.

Table with Kwangju Ilbo heade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